

#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성립과 반공주의의 역할\*

구 경 모  
(부산외국어대학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등장에 있어 반공주의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부독재정권의 무대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 국가인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남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반공주의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결과로 인해 파라과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5년간의 군부독재정권이 집권하였고, 그 정권이 수립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연구는 군부독재정권의 성립이 냉전시기의 반공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현재 파라과이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모순이 냉전이라는 미명하게 미국 주도로 탄생된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임을 밝히는 것도 겸하고 있다.

주제어 : 반공주의, 군부독재, 공포문서, 파라과이, 냉전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1. 서론

라틴아메리카의 근현대사는 독재와 그에 저항하는 세력을 둘러싼 민주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지난 20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독재와 그에 대항하는 반독재 투쟁, 즉 민주화 투쟁이 번갈아가며 지속되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투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장소는 바로 코노수르(Conosur) 지역일 것이다. 코노수르는 통상 남미남부지역으로 불리며,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남서부, 볼리비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1970~1980년대, 이 지역은 반민주적인 탄압이 대규모로 자행되었던 콘도르 작전(Operación Cóndor)이 벌어진 곳이다. 콘도르작전은 당시 군부독재 체제하에 있던 남미의 정부들이 상호 공조하여 소위 좌경세력이라 일컫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자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살인과 납치, 고문, 감금 등을 꾀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실종자들의 숫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른다.

콘도르 작전으로 명명된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를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이라고도 부른다. 이 작전은 아르헨티나의 ‘오월 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와 1984년에 발간된 아르헨티나 과거사 위원회의 보고서인 ‘nun카마스(Nunca Más)’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몇 년 후에 nun카마스(Nunca Más)(송기도 1988)가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도 6.25 전쟁과 군부독재정권 당시에 자행됐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과거사 청산의 ‘선배’격인 라틴아메리카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송기도(2002), 김용호(2003), 박구병(2005, 2010)과 노용석(2010), 구경모·노용석(2012)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코노수르 지역의 군부독재 상황과 반공주의 확산, 민주화 이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와 군부독재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이행기 정의와 과거사 문제에서 보듯이 과거의 역사적 산물만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는 구소련 붕괴이후 냉전이라는 정치적 역학 구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냉전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으로서 과거 청산은 바로 냉전체제의 질곡과 그 기반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 그 결과물인 군부독재의 폐해를 떨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는 오늘날에도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라틴아메리카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권현익 2013, 박구병 2015).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 혹은 반미와 친미 세력 간의 대립은 바로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와 그 단초로 형성된 군부독재정권의 결과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냉전 초기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의 성립과정 분석을 통해 최근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충돌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 가운데 사례 연구로서 파라과이를 택한 것은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특수성과 의미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라과이는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반공정책, 특히 남미의 반공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지역이다. 이는 지리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였는데, 파라과이는 남미의 대국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남미국가가 쿠바혁명 성공 이후 미국의 지원 아래에 수립된 반공주의 군부정권임에 비해 파라과이의 군부독재정권이 쿠바혁명 성공 이전에 등장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sup>1)</sup> 게다가 파라과이의 군부독재자인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는 칠레의 피노체트(Pinochet)와 아르헨티나의 비델라(Videla)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35년 동안 파라과이를 통치하였다. 그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유지한 독재자였다.

더불어 파라과이는 반공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공포문서(Archivo del Terror)’가 발견된 곳이다. 이 문서는 증언으로만 떠돌던 콘도르 작전의 실체를 밝힐 문건으로 1992년에 발견되었다. 이 자료에는 콘도르

1) 중미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쿠바혁명 성공 이전에 반공주의 군부독재정권이 등장하였다.

작전에 참여했던 각 국가 정보기관의 서신과 시민들을 탄압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콘도르 작전을 수행했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20년대부터의 자료도 축적되어있어 20세기에 벌어진 라틴아메리카의 냉전과 반공주의, 군부독재 성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냉전이후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반공주의를 어떻게 이식한 과정을 파라과이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사례는 냉전 초기 반공주의가 군부독재정권 성립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엿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반공주의가 파라과이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러한 전략이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 성립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파라과이의 군부독재정권과 반공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공포 문서에 대한 개관을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성립 과정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반공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반공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미국과 스트로에스네르 정부간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대공수사국 설립 과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공포문서’를 해제한 보고서와 관련 저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II. ‘공포문서’와 미국의 반공주의

1992년 파라과이에서 발견된 ‘공포문서(Archivo del Terror)’<sup>2)</sup>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추악한 인권 탄압으로 회자되는 콘도르 작전의 실체를 밝혔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공포문서는 콘도르 작전을 수행했던 정부의 공식자료가 기록되어있는데 파라과이이외에 그 작전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나머지 5개국의 정보기관의 활동내역도 낱알이 기록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공포문서에

2) Archivo del Terror은 직역하면 ‘공포문서’지만, 이 아카이브의 성격은 ‘국가폭력을 기록한 문서보관소’에 가깝다. 즉 ‘국가 폭력의 문서고’ 혹은 ‘국가폭력의 기록보관소’의 용어로 쓴다면 이 기록물에 대한 성격을 전달하는데 더욱 명확하겠지만, 한국의 언론과 기존의 논문에서 ‘공포의 문서’ 혹은 ‘공포문서’로 널리 알려져 있어 본 논문에서도 공포 문서로 사용하고자 한다.

는 콘도르 작전 시기 이전의 파라과이 군부 독재의 인권탄압 실상도 자료로 남아 있다. 즉 공포문서는 콘도르 작전과 함께 반세기에 걸친 미국의 반공주의 정책과 파라과이 독재정부의 관계를 속속들이 보여주며 이념과 무관한 민중들이 억압당했던 역사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0년에 공포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공포문서는 1989년 스트로에스네르 독재정권이 종식되면서 아무렇게 방치되다가 1992년 파라과이 인권운동가인 마르틴 알마다(Martín Almada)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판사인 호세 아구스틴 페르난데스(José Agustín Fernández)의 도움으로 람바레(Lambaré)시의 검찰 수사부 지하 창고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콘도르 작전의 자료를 무더기로 발견하였다(구경모&노용석, 2012). 이 문서는 공포문서로 명명되었고, 1993년에 파라과이 대법원 산하 아카이브문서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y archivo: 이하 CDyA)에 보관되었다. 이 자료는 현재 대법원 정의박물관(Museo de la Justicia)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아카이브문서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y Archiv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에 보관되어 있다.

공포문서는 1929년부터 1989년까지 정부에서 자행한 인권 탄압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신상카드와 사진, 팸플릿, 도서, 기사 스크랩, 녹음테이프 등의 형태로 보관되었다. 공포문서는 아카이브문서센터(CDyA)에 약 70만개의 파일과 600권 도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숫자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공포문서에는 11,225명의 구속 수감자 정보가 있으며, 1,888개의 여권과 주민등록증 정보가 있다. 또한 20,000개의 구속 수감자와 정당인, 반체제 인사, 가택 수색과정에서 관련자 가족들의 앨범 등의 사진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543개의 녹음테이프에는 정치인들의 모임과 회의, 연설, 강연 등의 자료가 담겨있다(Alfredo Boccia 2008: 49~50). 공포문서의 자료의 대부분은 스트로에스네르가 집권한 1954년부터 1989년 사이에 자행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전의 자료는 ‘스트로에스네르 이전의 아카이브(Archivo Pre-stronista)’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로 경찰자료

와 시위 주동 노동자의 명단과 이름이 약 4,000개의 카드로 보관되어 있다. 그 카드에는 출입국 기록과 가족 행사 참석자<sup>3)</sup>, 모임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 등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공포문서의 내용은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전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이전의 자료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이후의 자료는 반정부 인사들의 체포 및 수감, 고문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기에 따라 수집한 자료가 다른 것은 반공주의의 이식과정과 관계가 있다. 스트로에스네르 정권 이후의 반정부인사는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혔으며 특수 관리대상이 되었다.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반체제 인사를 수감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미국으로부터 배웠는데,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면서 그들에 대한 탄압 및 고문 방법을 파라과이에 적극적으로 전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포문서를 중심으로 미국 반공주의가 본격적으로 파라과이에 이식되기 시작한 1940년대와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는 바로 스트로에스네르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장악한 시기로서 군부독재정권의 성립과 반공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도 적절하다.

### III. 콜로라도당과 군부독재정권의 성립

#### 1. 콜로라도당의 집권

파라과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정당들이 난립했으나, 대부분은 군소정당으로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다. 단지 두 정당만이 1887년 제헌의회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정당들은 바로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과 자유당(Partido Liberal)<sup>4)</sup>이다. 이 두 정당은 파라과이 양당 체

3) 결혼식과 장례식에 초대된 사람들의 명단도 포함됨.

4) 콜로라도당의 정식명칭은 민족공화국연합-콜로라도당(La Asociación Nacional Republicana-Partido Colorado: ANR-PC)이며, 줄임말로 콜로라도당이라 불린다. 콜로라도당의 상징색이 붉은색이어서 우리말로 '홍색당' 혹은 '홍당'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자유당의 정식명칭은 급진정통자유당(Partido Liberal Radical Auténtico:

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두 정당은 1936년을 제외하고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콜로라도당은 당이 설립된 1887년부터 1904년까지 정권을 잡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당이 지배하였다. 1936년에는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양당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사회주의 계열인 2월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Febrerista)의 라파엘 프랑코(Rafael Franco) 장군이 정권을 잡았다.

프랑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듬해에 또 다른 군부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프랑코의 후임으로 1939년 자유당의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José Felix Estigarribia) 장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에스티가리비아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1년 만에 비행기 사고로 급사하였다. 그 이후 에스티가리비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이히니오 모리니고(Higinio Morinigo) 장군이 군부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게 된다. 모리니고는 자유당 정부에서 일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유당을 탄압하였고 급기야 1942년에 자유당을 해산시키는 등 파시스트적인 독재 정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모리니고는 당적을 원하지 않는 무당파주의자였지만 정권유지를 위해 콜로라도당 내부의 군부와 연대하였다. 이때부터 모리니고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1942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대로 파라과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방미 결과로 모리니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군사 원조를 받았는데, 이 시기는 겉으로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찾는 듯 했다 (Black 2012: 818).

하지만 모리니고 정부의 파시스트적인 독재 정치는 자유당의 해산과 함께 맞물려 반콜로라도 세력, 즉 야당 세력이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콜로라도 세력은 자유당과 2월 혁명당, 나머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연대하면서 구축되었다. 반콜로라도 세력들은 차코전쟁의 영웅이자 대통령을 역임했던 라파엘 프랑코 장군을 수장으로 하여 이들을 지지하는 군

---

PLRA)으로 줄여서 자유당으로 불린다. 자유당은 스트로에스네르 독재시절에 정당 이 해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78년에 급진정통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자유당이라는 이름에 급진정통만 붙었을 뿐 기존의 자유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 자유당으로 부른다. 자유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으로 우리말로 ‘청색당’ 혹은 ‘청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와 합세하였다. 이들은 파라과이의 북부 도시인 콘셉시온에 군대를 모아 파라과이 강을 따라 수도인 아순시온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정부군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5개월간의 전투 끝에 야당 세력을 몰리쳤다. 이 전쟁은 '47년 내전(Guerra Civil del 47)' 불리며 파라과이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었다.

‘47년 내전’ 이후 파라과이 사회는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 특히 내전 이후에도 콜로라도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병대인 **쁘난디(pynandy)**<sup>5)</sup>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정부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고문을 하거나 학살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반정부 인사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와 감금, 고문으로 당하였다. 이 시기에 파라과이의 반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정치인과 예술가등의 지식인들이 무차별인 탄압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sup>6)</sup>

모리니고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억압적인 정책을 펴고자 했으나 일부 군부에서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모리니고는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47년 내전’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거부하였다(Black 2012: 819). 미국이 모리니고의 지원 요청을 묵살 한 것은 그의 파시스트적인 성향과 함께 콜로라도당 내부의 지지가 약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결국 1948년에 같은 당의 나탈리시오 곤살레스(Natalicio González)가 모리니고

5) **쁘난디(pynandi)**는 파라니아어로 맨발(Pies descalzos)이라는 뜻이다. 이 당시 민병대가 주로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녀서 붙은 이름이다.

6)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정치적 탄압 때문이었으며, 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반콜로라도 조직을 형성하였다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이후에는 아르헨티나거주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반스트로에스네르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세력과 연대하여 1959년 12월경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무장하여 파라과이로 진격한 이른바 ‘5월 14일 운동(Movimiento 14 de Mayo)’이라 불리는 무장투쟁을 시도하였다. ‘5월 14일 운동’은 그 정보가 미국 첩보기관과 파라과이 정부에 의해 유출되어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부군에 의해 거의 일망타진되었다. 일부 무장투쟁군들이 내륙 깊숙히 침투하였으나 모두 사살되거나 체포되었다.



를 권좌에서 내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2. 미국의 지원과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의 탄생

콜로라도당은 파라과이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지만, 스트로에스네르가 집권하기 전인 1954년까지 내부 계파간의 갈등으로 약 6년간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당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47년 내전’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운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콜로라도당이 ‘47년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스트로에스네르는 1948년 36세의 나이로 남아메리카 최연소 장군이 되었다. 그는 1951년 콜로라도당에 가입하면서 정치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군(軍)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1954년에는 그의 지지 세력과 함께 같은 당의 페데리코 차베스(Federico Chavez)대통령을 쿠데타로 몰아내었고, 그 해에 곧바로 스트로에스네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당시는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그들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던 라틴아메리카가 구소련의 영향권에 넘어갈까봐 두려워할 무렵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는 1953년 1월 2일에 아순시온 주재 미국대사관의 존 실록(John Shillock) 일등 서기관이 미국 정부로 보낸 비밀 문서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라플라타(La Plata) 지역<sup>7)</sup>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반구의 안전과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Farina & Boccia 2010: 23)

미국은 라플라타 지역의 안보를 위해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대사관과 긴밀하게 전략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가 라플라타 지역을 공산주의로부터

7) 라 플라타 지역은 플라타 강(Río de la Plata) 유역의 국가를 일컫는 말로서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비롯한 남미남부지역을 지칭하며, 대략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코노수르(conosur)와 일치한다.

지킬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파라과이가 두 거대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여 있어 지리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반공주의 실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라과이가 구소련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면 남미지역 전체가 좌경화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 여겼다. 게다가 당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Juan Perón) 정부와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Getulio Vargas) 정부는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 두 정부는 미국이 남미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가 두 국가에 반공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지원하기에 힘든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측면 이외에도 미국은 파라과이의 국토가 작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며,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경제를 이끌 인재도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침투할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판단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파라과이를 손쉬운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은 반공주의를 이식하기 위해 파라과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물을 고르던 중 스트로에스네르를 찾게 된다. 스트로에스네르는 풍부한 경험과 평판에 비해서 젊고 정치적인 잔뼈가 굵기 않아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미국 정부는 스트로에스네르가 집권하기 1년 전부터 그를 불러들여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고, 로버트 스티븐(Robert Steven) 육군성 장관은 1953년 5월에 그를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그 후로도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으로부터 주목받는 군부 세력으로서 콜로라도 당내에서도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는 쿠데타를 통해 차베스 정부를 끌어내리고 이듬해 8월 1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스트로에스네르의 취임 후 파라과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스트로에스네르는 집권하자마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Eisenhower)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반공법(Ley 294/55)을 1955년에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행위를 공산주의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곧 바로 고소도 가능하다. 모든 공무원들은 약간이라도 공산주의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의혹이 가는 단체나 공동체도 고발할 수 있다(Farina

& Boccia 2010: 32).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이 파라과이의 좌경화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 시작으로 스트로에스네르는 집권과 동시에 미국의 계획을 받아들여 반공주의를 이식하였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반공법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또한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스트로에스네르는 1956년 6월 23일 파나마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서로가 원하던 계획을 성사시켰다. 스트로에스네르는 반공주의 정책 이행을 약속하였고, 미국은 그 보답으로서 파라과이에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파라과이는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약 6년간 미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받았다(Farina & Boccia 2010: 45).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의 반공주의 받아들임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적 안정화를 꾀했으며,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를 통해 반정부인사들을 마음껏 제어함으로써 독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35년 동안 안정적으로 군부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 IV. 반공주의 정책과 군부독재정권의 공고화

##### 1. 반공주의를 통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의 안정화

스트로에스네르는 54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반콜로라도 세력은 그에게 있어 항상 위협적인 요소였다. 이에 스트로에스네르는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필요하였다. 스트로에스네르는 외교정책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유지하고자 친미(親美)노선을 공고히 하면서 반공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친브라질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구경모 2012).

역사적으로 파라과이는 경제와 사회·문화적으로 아르헨티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내륙국인 파라과이는 인적, 물류 이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혹은 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파라과이의 주요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식민 시기부터 라플라타 지방의 거점 지역인 아르헨티나에서 고등학문과 문물, 사상을 접하여 자연스레 친아르헨티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특히 친아르헨티나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부류들로서 대다수가 자유당 혹은 반콜로라도 정서가 있는 그룹들이었다. 스트로에스네르는 친아르헨티나 성향의 반콜로라도 세력에 대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는 친미를 거부한 후안 페론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스트로에스네르의 ‘아르헨티나와의 거리두기’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스트로에스네르는 당시 친미노선을 걷고 있던 브라질의 쿠비체크(Kubitschek) 정부와 협력을 한다. 브라질은 파라과이에 차관을 제공하여 아순시온과 브라질 국경도시인 이과수를 잇는 고속도로와 다리를 건설한다. 이 사업은 동진정책(Marcha del Este)으로 불렸으며, 두 국가를 잇는 교량의 이름도 양국의 관계를 상징하듯이 우정의 다리(Puente de Amistad)으로 명명되었다. 이 시기부터 파라과이는 경제 부문에서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브라질과의 교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동 댐 건설도 추진되었는데, 그 댐이 바로 양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파라나 강(Río Paraná)에 건설된 이타이푸(Itaipú) 댐<sup>8)</sup>이다.

친브라질 외교는 파라과이의 반콜로라도 부류인 친아르헨티나 세력의 약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등장한 스트로에스네르의 친위 집단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스트로에스네르의 정책은 모두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친브라질 외교의 상징인 동진 정책은 브라질을 통해 미국의 자금으로 추진된 것이었다(Farina & Boccia 2010: 29).

8) 이타이푸댐은 1984년에 완공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량이 많은 댐이었다. 잠시 중국 산샤댐에 발전량에서 1위 자리를 빼앗겼다가 최근 터빈을 추가하면서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스트로에스네르는 외교적으로 친미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반공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공분자’에 대한 색출이었다. 특히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공포를 조장하였다. 더 나아가 무고한 이민자들까지 탄압하곤 하였는데, ‘프람의 비극(La Tragedia de Fram)’으로 불리는 사건은 스트로에스네르의 반공주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1955년 5월에 아르헨티나와 마주보고 있는 파라과이 남부 국경 지역인 이따푸아(Itapua)주의 작은 마을인 프람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에는 볼셰비키 혁명과 제 1차 세계대전을 피해 구소련계와 동구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프람은 이러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중의 하나로서 구소련 출신 가운데서도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다음의 신문 보도는 당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가 반공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준다.

이들은 고향을 그리며 축제를 벌일 때 구소련의 국가를 부르면서 향수를 달래곤 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축제에 참가했던 공무원과 경찰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불순한 모임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소식은 빠뜨리아(Patria)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게다가 1955년 5월 26일자 신문에는 “이따푸아(Itapua)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공동체의 반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 실리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 이 당시는 작은 회합도 과장하여 테러로 간주하는 시절이었다(Rubiani: 2012: 87).

프람의 주민들은 1920년대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시베리아를 거쳐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필리핀을 통해 이탈리아,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파라과이에 최종적으로 정착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구소련을 빠져나왔지만, 단지 구소련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란조직으로 낙인찍혔다. 프람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아순시온으로 연행되었고 다른 인근의 마을의 이민자 남성들까지 총 400여명이 구속되었다. 다른 언론들과 여당의 소식지

는 앞 다투어 반란자들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파라과이의 시민들은 구소련 출신의 이민자들이 공산주의자의 혁명을 도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공포 정치는 반정부 세력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른 측면으로는 시민들이 스트로에스네르에 대해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예컨대 그가 무자비한 혁명 집단인 공산주의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새로이 정권을 잡은 행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트로에스네르의 정권 운영 능력은 미국 정부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아순시온 미국대사관의 이등서기관인 구스타브 살라스(Gustav Sallas)의 외교논평에서 잘 드러난다.

파라과이 대통령의 재집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 국가가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당과 잘 조율하며 군부를 말할 나위 없이 잘 통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정치 민주화를 위한 첫 집권에서 야당 측의 비판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 집권에서는 파라과이 정치가 거친 폭풍우를 지나 편안한 환경이 되리라 기대합니다((Farina & Boccia 2010. 32).

사실 두 번째 집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스트로에스네르를 지원하면서도 그의 정권 재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였다. 그러나 스트로에스네르가 1958년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스트로에스네르를 파라과이, 더 나아가 라플라타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스트로에스네르는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 2. 대공수사국의 설립과 스트로에스네르의 장기 집권

파라과이 반공주의 정책은 스트로에스네르 장기 집권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정점에는 바로 대공수사국의 설립이 있었다. 대공수사국은 반공주의 세력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제압하는, 즉 반공주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을 굳건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47년 내전’ 이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잔재한 반정부세력이 언제 결집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촉각이 곤두서있었다. 특히 여당인 콜로라도당과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파라과이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주변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정부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고심하였다. 이들 주변국의 정부들은 반스트로에스네르 세력을 ‘몰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공주의 기치아래 미국과 연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입장에서 남미의 좌경화를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인 거점지역으로서 파라과이가 중요했다. 즉 파라과이에서 반공주의 이념은 미국의 의도와 스트로에스네르의 정권 수성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양쪽을 이어주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이에 두 국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직이 필요하였고, 그 연결 고리가 바로 반공주의를 실천할 부서인 대공수사국의 설립이었다.

대공수사국(La Dirección Nacional de Asuntos Técnicos: 이하 DNAT)은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에 배치되었다. 대공수사국의 역할은 공안 담당 부서로서 좌경세력과 반정부인사를 체포하고 감금·고문을 했던 기관으로 1957년에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세간에 ‘라 테크니카(La Técnica)’라는 줄임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공수사국은 스트로에스네르 정부 출범이후 반공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필요했으나, 파라과이에는 이를 공안 사범을 처리하고 다룰만한 기술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에 파라과이는 대공수사국을 설립을 위해 캄포스 알룸(Campos Alum) 박사<sup>9)</sup>를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유학생 자격으로 1955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반체제인사에 관한 정보수집과 고문 기술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는 파라과이 대공수사국 설립 책임자로 참여하였으나, 파라과이 정부는 대공수사국을 운영하기에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전문가를 더 요

9) 그의 약력은 베일로 가려져 있다. 단지 파라과이 최고의 고문 기술자로 알려져 있으며 92세의 나이로 2012년에 사망하였다.

청하였다. 이 요청은 파라과이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일사천리로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바로 대공수사국 설립과 관련된 전문가 파견에 대한 양국의 공식적인 서면이다.

1955년 11월 17일

아순시온의 미국대사관 비밀문서에는 1955년 11월 17일 앤드류 워드 로(Andrew Wardlaw) 일등 서기관이 미국 정부에 파라과이 정부가 (Técnico Policial) 파견 요구에 관한 내용을 전달.

1955년 11월 30일

아순시온 미국대사관의 대사인 아더 아게톤(Arthur Ageton)은 극비 문서를 당시 파라과이의 외무장관 이쁠리또 산체스 켈(Hipólito Sanchez Quell)에게 보냄. 파라과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미국 내무부의 정보로서 그 내용은 공산주의자와 싸우기 위해 파라과이 내무부내에 정보기관을 설립하는데 협력하며 반공산주의 문제 전문가 파견에 동의하다는 것임.

1956년 4월 12일

아순시온의 미국대사관에서는 경찰기술자문관(Asesor Técnico Policial)을 요구함. 그 계약서에는 6개월간 파견하기로 되어 있음. 지원자의 조건에는 스페인어 사용과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명시됨.(Garcia 2010: 105-106)

미국 정부는 파라과이 대공수사국의 설립을 지원할 적절한 인물로 로버트 테리(Robert Thierry) 중령을 임명하였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1909년 1월 17일 생이며 정보기관 감독관과 코디네이터, 군정보기관 조사관을 역임하였으며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도 참여한 군사전략 분야의 베테랑으로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서 판단하여 1956년 5월 파라과이로 파견되었다 (Garcia 2010: 110). 그의 능력은 당시 파라과이 내무부 장관이었던 에드가 인스프란(Edgar Ynsfrán)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테리는 한국전쟁의 베테랑으로, 우리는 그가 어떤 이미지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파견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파라과이 내 무부에서 일하면서 미션 수행력이 아주 탁월했다(Ynsfrán 1991: 45)

원래 로버트 테리는 파라과이 내무부 소속으로 대공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파라과이에 머무르기로 계약되어 있었다. 파라과이 정부는 로버트 테리의 능력에 매우 만족하였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그가 온지 약 3개월 만에 계약 연장을 미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파라과이 정부는 테리의 능력에 매우 만족하여 반공 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 문서 마지막에는 아순시온의 미국대사관이 로버트 테리의 계약 연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CDyA 2002: 23).

미국은 대 공산주의 세력의 견제를 위한 거점으로서 파라과이가 중요하였고, 신생 정부인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로버트 테리의 계약 연장에 적극적이었다. 결국 파라과이 정부는 대공수사국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로버트 테리와의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 동안 채용하였다. 대공수사국은 로버트 테리가 파라과이에 온지 1년 7개월 만인 1957년 12월 18일에 내무부 산하 기관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대공수사기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상에서 대공수사국을 설립하기 위해 오고간 공식 문건들의 내용은 미국이 남미의 반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콘도르 작전 이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국가들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등에 널리 퍼져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관찰하고 방어하기에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손색이 없었다. 대공수사국의 설립 사례에서 보듯이, 반공주의는 파라과이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도구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공주의 실천은 반스트로에스네르 정부 세력들이 펼친 일련의 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59년에 발생한 '5월 14일 운동(Movimiento

14 de Mayo)’이다. 5월 14일은 파라과이의 독립기념일로서 스트로에스네르로부터 벗어난 제 2의 건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반(反)콜로라도당 세력들이 붙인 혁명 작전의 이름이다(Arellano 2005). 5월 14일 운동은 1947년 내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반콜로라도당 세력<sup>10)</sup>들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의 라플라타 지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아르헨티나 국경 여러 곳에서 혁명군을 조직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파라과이로 진격한 사건을 말한다(구경모 2012). 혁명군은 무장 투쟁을 통한 정권교체가 목적이었지만 그들의 작전이 미국과 파라과이 정부에 의해 사전에 노출되면서 실패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하였고 많은 수의 정치인과 민간인이 투옥되거나 잔인하게 처형되었다. 특히 47년 내전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이들을 체포·감금, 고문, 살해를 주도한 조직이 바로 대공수사국이었다. 대공수사국은 5월 14일 운동 이후에 발생한 반정부 인사들을 공안 사건들과 콘도르 작전, 소모사 사건(Caso Somoza)<sup>11)</sup>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의 정체성인 반공주의를 공고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공수사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트로에스네르는 반공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35년간의 장기 집권의 기틀을 잡았으며, 콜로라도당은 2008년에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전(前)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61년 동안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10) 이들 세력들은 자유당과 2월 혁명당원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국적의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11) 소모사 사건은 파라과이에서 소모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한 일을 말한다. 소모사(Somoza)는 니카라과의 독재자로 1979년 민중들이 항거에 못 이겨 파라과이로 망명하였다. 스트로에스네르는 같은 독재자인 소모사와 그의 가족을 극진히 보살피 주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소모사는 자신의 승용차인 벤츠를 타고 가던 도중 아르헨티나와 니카라과 출신의 게릴라들에게 소총과 바주카포로 공격을 받아 자동차가 전소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5년간의 파라과이 군부독재체제의 출현 배경을 통해 냉전 시기 미국이 주도한 반공주의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군부독재정권의 출현이 반공주의에 기반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 의해 이식된 대공수사기관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군부독재정권이 반공주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일부 중미지역 국가에 친미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먼 라플라타 지역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라플라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미국 입장에서 다루기에 만만했던 파라과이는 반공주의의 거점이 되었다. 그 결과 파라과이는 쿠바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군부독재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 연구는 당시의 인권유린과 탄압, 비민주적인 행위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구조적 대립과 모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에 발생한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대통령 탄핵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루고가 탄핵을 당한 표면적 이유는 꾸르파뜨 농민 유혈사태지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스트로에스네르 시절의 대립구도인 독재 세력과 반독재 세력과의 대결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은 정치적 탄압과 함께 경제적 수탈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는데,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적 탄압이 바로 농민과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혹은 강제로 수취한 후에 군부 혹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과 원주민들은 독재정권이 끝난 후에 토지가 없어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게릴라가 되거나 유혈투쟁에 나섬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루고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군부독재 세력들의 이념 공세에 밀려 좌파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스트로에스네르는 몰러갔지만 냉전의 산물인 반공주의와 군부독재 세력들은 여전히 파라과이 사회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정치경제적인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구경모, 『과이라 공화국, 또 하나의 파라과이』, 이담북스, 2011.
- \_\_\_\_\_,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대립에 따른 파라과이 국토정책의 변화」, 『이베로아메리카』 14권 1호, 2012.
- 구경모 & 노용석, 「페르난도 루고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수성」,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2012.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역, 민음사, 2013.
- 김용호, 「아르헨티나 <더러운 전쟁>에 대한 저항과 기억의 양태」, 『라틴아메리카연구』 16권 2호, 2003.
- 박구병, 「눈까 마스'와 '침묵협정' 사이 : 심판대에 선 아르헨티나 군부의 '더러운 전쟁」, 『라틴아메리카 연구』 18권 2호, 2005.
- \_\_\_\_\_,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보상과 추모」,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권 1호, 2010.
- \_\_\_\_\_, 「라틴아메리카 뜨거운 냉전」, 『세계정치』 22호, 2015.
- 블랙, 쟈 니퍼슨,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중남미지역원 번역팀 옮김, 이담북스, 2012.
- 송기도, 『눈까마스』, 서당, 1998.
- \_\_\_\_\_, 「중남미 인권과 화해 : ‘진실위원회’의 특성」, 『4·3과 역사』 12호, 2002.
- Arellano, Movimiento 14 de Mayo para la liberación del Paraguay 1959, Asunción: Servilibro, 2005.
- Ashwell, Concepción 1947: Sesenta año después, Asunción: Servilibro, 2007.
- Boccia & Gonzáles & Palau, Es mi informe: los archivos secretos de la policía de Stroessner, Asunción: Servilibro, 2006.

- Boccia & Palau & Salerno, Paraguay: Los Archivos del Terror: papeles que resignificaron la memoria de stronismos, Asunción: Servilibro, 2008.
- Boccia & López & Pecci & Giménez, En los sótanos de los generales: los documentos ocultos del operativo condor, Asunción: Servilibro, 2008.
- Devalle, Alcibiades, La Hegemonía Colorada 1947-1954, Asunción: El Lector, 2010.
- Harder, René, El Régimen de Stroessner y la Resistencia Indígena. Asunción: CEADUC, 2011.
- Farina & Boccia, El Paraguay bajo el Stronismo 1954-1989, Asunción: El Lector, 2010.
- González, Juan, El Crimen del Cine Splendid: Stroessner, Los Nazis y El Paraguay de la Decada del 60, Asunción: Intercontinental. S.A.. 2010.
- Rubiani, Jorge, La Tragedia de Fram, 2012.
- Ynsfrán, Edgar, Solo la Concordia Salvará al Paraguay, Asunción: Compugraph, 1991.

<아카이브 자료>

- Corte Suprema de Justicia, Mueso de la Justicia, Centro de Documentación y Archivo para la depensa de los Derechos Humanos, 20años de memoria sostenida 1992-2002.

❖ ABSTRACT

## Formation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Anti-Communism in Paraguay

Gu, Gyoung-Mo

The aim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determine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anti-communism in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dictatorship in Paragua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of great importance since the U.S attempt to obtain hemispheric solidarity in World War II, the Cold War in Latin America, an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La Plata region. The Archives of Terror are official documents of police repression between Alfredo Stroessner's dictatorship and the U.S. U.S provided support and aid to Paraguay dictator. Alfredo Stroessner spanned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course of Paraguay-U.S. relation during his regime is illustrative of the flow of real politics in both nations. Not only did Washington had definite diplomatic goals, so did Asunción. The relative disparity in power and wealth between the two nations did not necessarily hinder Paraguay's pursuit of international advantage in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Key Words

anti-Communism, military dictatorship, archives of terror, Paraguay, Cold War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